



작은 변화 모아 큰 미래 만들 것

글_ 정선영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원 vika@kitox.re.kr

최 근 에릭 브레스와 J. 매키 그루버 감독의 '나비효과'가 많은 국가들의 상영관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원래 '나비효과'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생각해내어 카오스 이론의 출발점이 된 이 원리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화 '나비효과'는 한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스토리를 카오스 이론에 접목시킨 독특한 사상의 창작물이다.

사람의 삶은 선택과 기회비용의 연속이다.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택과 기회비용의 갈등은 친밀감과 낯섬의 갈등으로 대변되는 듯하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항해에 있어 가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면 친밀감에 끌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요, 가시적인 모험을 추구한다면 낯섬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순간적인 작은 선택들의 누적으로 미래에는 영화 '나비효과'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활성 독성 평가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대사성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학부과정에서 과학자 후보생으로 실험실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커다란 모험의 시작이었다. UST 1회 입학생이라는 표현은 검증되지 않은, 선배도 없는, 체계도 잡혀있지 않은 곳에 가서 그 동

안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습득하고 익혀나가야 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세와도 같은 기분이 들었다. 광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도 모르는 광야 생활을 40여 년간이나 했던 모세의 처지에 약간은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그러나 낯섬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박사님·실험실 동료들과 만나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실험 등을 진행해 나가면서 새색시 같았던 모습을 극복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예비 과학자 후보생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었다. 역사 속의 모세 역시 홀로 광야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동료들이 있었고,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해결하고 함께 기뻐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처음의 낯섬을 잊고 친밀감이 가득한 환경에서 지내다가도 또 다른 낯섬과 친밀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어느 하나를 기회비용으로 남겨야 할지 고민하는 때가 올 것이다. 아직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학문적 탁월성으로 쌓고 마음을 벌려 선택의 때를 즐기고 싶다.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이제 과학자 후보생으로서 한 걸음을 옮겼다. 이 작은 날갯짓이 앞으로 내 인생과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폭풍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



글쓴이는 한동대학교 생명식품과학부를 졸업했다.